

북한개발소식

2025 MAY

05

통권 235호

이달의 주제

북한 출신 다음세대를 통해 배우는 통일과 북한선교

탈북민 수기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8)

북한뉴스

영국 국방부 “북한군, 쿠르스크서 사상자
5천명 넘어… 3분의 1 전사”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북한 출신 다음세대의 신앙 경험을 통해 배우는 통일과 북한선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5 MAY

이달의 주제 :

북한 출신 다음세대를 통해 배우는 통일과 북한선교

- 권두칼럼 01** 북한 출신 다음세대의 신앙 경험을 통해 배우는 통일과 북한선교
- 칼럼_1 11** 신호숙_ 북한 출신 다음세대의 정착 현황과 과제
- 칼럼_2 18** 경선미_ 탈북청년을 위한 교회의 역할
- 칼럼_3 24** 전명희_ NK 다음세대 사역을 위한 우리의 자세와 과제
- 탈북민 수기 29** 김열매 성도_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8)
- 서평 34** 서로서로 배우는 중입니다
- 북한뉴스 36** 영국 국방부 “북한군, 쿠르스크서 사상자 5천명 넘어... 3분의 1 전사” 외
- 북한 기도 제목 39** 통일과 선교의 주역으로 남북의 다음세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외



한국 교회에게 민족 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분단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회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민족의식이 희미해지고 통일에 대한 회의론이 퍼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고난 속에서 그 땅을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북녘 형제자매들의 헌신에 동참하기 위해 북한선교에 참여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가 말하는 통일은 단순한 정치경제적 이슈를 넘어 사람의 하나됨이며, 제도나 영토의 문제가 아닌 영혼의 문제입니다.

다가올 통일 시대의 주역은 다음 세대, 청년 세대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함께 복음으로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한국 교회의 비전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다음 세대를 통일의 세대로 일으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역 현장에서는 북한의 청년세대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고, 낯설음과 함께 남과 북의 청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본 경험도 적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 출신 기독교 청년·청소년들의 경험은 중요한 배움의 대상입니다.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3만 명을 넘어선 만큼 여러 북한 출신 청년,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였고, 선교사와 교회, 기독교 대안학교 같은 기독교 기관 등을 통해 복음을 받아드리고 신앙인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들의 경험은 우리 교회가 북녘의 다음세대를 이해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탈북 청년들의 신앙 경험

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통일과 북한선교를 생각하며 배울 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탈북 청년들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만남

북한 출신 다음세대의 신앙 경험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신앙 안에서 북한 출신 다음세대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형성해 가는지에 주목하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 출신 다음세대들은 억압적인 북한의 상황에서 내면 세계가 잘 형성되지 못했고 탈북 과정에서의 트라우마 등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남과 북이라는 두 세계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남한 사회의 물질주의적인 문화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기독교 탈북 청년들은 신앙을 통해 건강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넘어 통일의 비전을 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신앙을 가지지 못하거나 표면적인 신앙인에 머무르면서 기독교 정체성의 훼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전명희, 박정아, 조성희(2018)¹의 탈북 기독교 청년들의 회심에 관한 연구에서는 북한에서의 삶의 정황, 탈북이라는 삶의 위기, 그리고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과 교회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이들의 신앙의 여정이 진행되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탈북 기독교 청년들은 북한의 억압적인 환경과 어려운 여건, 그리고 탈북을 거치면서 삶과 고통에 대해 사유하게 되었고, 이러한 점들이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내면적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의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제 3국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탈북을 한 이들의 경우에는 주로 한국에서 가족들의 인도로 교회 공동체를 만나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먼저 한국에 와있던 가족들이나 이들의 탈북을 도와준 선교사나 전도자들의 도움이 이들의 회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김은희(2025)²는 북한 출신 청소년과 청년들의 기독교 영성 체험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의 신앙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만남”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진심으로 대하고 계산 없이 도와주며 신실하고 정직한” 기독교인들과의 만남이 북한 사회 특유의 긴장 속에서 형성된 관계, 의심의 장벽을 허물고 그들의 마음을 열도록 만들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전명희(2020)³는 탈북 청년의 신앙 여정을 두 세계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북한에서의 삶은 종교와 영성, 내적 자기에 관하여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생존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탈북을 계기로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남한 사회에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겪었던 열악한 양육 환경 등으로 인해 지체된 내면의 영역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신앙 발달 초기에는 거듭남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활동에 몰입하고 상생을 경험하지만, 이내 현실의 가혹함과 자신의 한계에 대한 절망, 특별히 탈북민으로서 겪은 트라우마적 경험으로 인한 회의감과 하강의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좌절의 시간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영적 자양분을 소화한 이들은 현실에 발을 딛은 균형 잡힌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여기에는 애착을 형성하고 건강한 관계를 제공하는 교회 및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경선미(2020)⁴는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과 교회라는 새로운 환경에 진입하며 겪게 되는 정체성의 혼란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극복되며 기독교 정체성이 발달하는지를 연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탈북 청소년들은 입국 이후 남한 사회에서 물질과 이기적 욕망으로 인해 자기 정체성에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앙과 말씀 안에서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고 통일에 대한 소명의식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이들의 기독교 정체성 유형을 1) 감정적 신앙체험 유형, 2) 습관적 종교생활 유형, 3) 성숙한 신앙 정서 유형, 4) 개방적 상호존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유형의 경우 신앙적 정체성이 온전히 발현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3)유형의 경우 신앙적 정체성이 건강한 자아의 회복으로 발현되고 있지만 타인에 대한 신앙적 실천능력은 아직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4)유형 단계에서부터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회복된 자아정체성을 발현할 뿐 아니라 통일의 소명의식으로도 발현되어 고향 사람들과 지역에 대한 소명의식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기독교 탈북 청소년들이 1), 2) 유형



1 전명희, 박정아, 조성희 (2018), “탈북 청년들의 기독교 회심과 신앙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9(3), 219-250.

2 전주람, 김은희(2025), 「북한출신 청소년 및 청년들의 기독교 영성 체험 내러티브 - 남북한 문화비교총서 15」, 경기도 파주: 한국학술정보, pp. 55-59.

3 전명희(2020), 「탈북청년들의 기독교 신앙발달 과정 연구 - 자기발달과 상호과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4 경선미, 「북한 이탈 청소년의 기독교 정체성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기독교 영성 교육의 단계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송실대학교 대학원 기독교통일지도학과.

에서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3)유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회와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위 연구들은 탈북 청년, 청소년들이 남한 출신에 비해 경험적으로나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회복되어야 할 마음의 영역이 있다는 점과,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과정이 분명 쉽지 않은 만큼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이들의 회심과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지와 선입견 등으로 인한 낯설음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탈북민들에 대한 무지나 선입견으로 일반 교회에 탈북을 한 청년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⁵는 것이 많은 교회들의 상황임을 쉽사리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명희, 박정아, 조성희(2018)⁶의 연구에서는 교회들이 탈북 청년들을 대할 때 두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합니다. 첫째로는 교회가 그들을 그저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무조건 복음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지 않고 이들의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들이 가진 북한에서와 탈북과정에서의 경험 및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강요적인, 일방적인 복음 제시는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격적인 목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 탈북 청년들의 이야기

이러한 태도적인 측면에서의 유의점과 함께 탈북 청년들이 말하는 신앙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교회가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세대 기독 탈북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 A씨를 만나 그들의 생활과 고민, 신앙과 교회, 통일의 비전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허락 하에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실감나는 표현을 위해 해당 내용을 대화 형식으로 기재하였습니다).

5 전명희, 박정아, 조성희 (2018), 앞의 글, p. 244.

6 위의 글, pp. 244-246.

1)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

저희와 교제하는 학생들은 다양하게 복음을 접했어요. 먼저 탈북 과정에서 교회나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은 경우 그분들을 통해 복음을 처음 접하곤 해요. 반면 개인 브로커를 통해 온 경우에는 남한에 입국하여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옆 사람을 따라 종교활동으로 기독교를 선택하면서 교회를 처음 가고 복음을 듣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일반 학교에 적응이 어려워 대안학교를 찾았다가 학교에서 복음을 듣게 되기도 했어요. 북한 사람들을 돕는 이들이나 대안학교 등 기관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다보니 어떤 친구는 농담 삼아 자신이 생각보다 기독교에 둘러싸인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보다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어려워하거나 ‘복음에서도 사상을 강요받고 속아왔는데 여기서도 속을 수는 없다’라면서 경계했다고 해요. 복음을 접하더라도 처음에는 믿으려는 생각이나 의지는 그리 없었다는 거겠죠. 하지만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인가가 이들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구요. 나에게 대가 없이 도움을 준 그 사람이 자신의 신앙 덕분에 그렇게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한 마음에 복음을 귀담아듣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의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권해주신 말씀을 들어보아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2) 교회에 대한 첫인상

대체로 교회에 대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남한 사회에서 탈북민은 환영받는다고보다는 무관심이거나 소수자라는 느낌인데 교회에서는 그래도 환영해주시고 환대해주니까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찬양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목사님의 설교는 어렵고 이해가 잘 안되는 때가 많지만 찬양은 그 가사가 내 고백 같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제 주변 친구들은 ‘은혜(손경민 작) 찬양을 특히 좋아하더라구요.

한편으로는 교회가 탈북민 친구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무례하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다는 아쉬움도 이야기해요. 불필요한 사적인 질문이나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는 화법, 또 잦은 출석 여부 확인 전화 등 과도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불편했다고 해요. 또 교회에서 자기 이름보다도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도 탈북민이라는 점을 꼭 먼저 언급하는 등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탈북민 ○○○’으로 보는 시선이 불편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특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자꾸 기억하기 싫은 탈북 이야기나 사적인 이야기를 물어보니 부담스러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신뢰가 쌓이면 자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될텐데 교회 분들이 잘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요.

또 남북의 문화가 다르다보니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인사말처럼 “나중에 밥 한끼 먹자” 같은 말을 편하게 건넨곤 하는데 북한 출신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밥 먹는 약속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왜 약속을 잡지 않고 연락을 주지 않는지 실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남한에서는 예의상 어떤 문제나 이슈를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에서는 직설적인 화법이 익숙하다보니 본이 아니게 서로가 상처를 받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접할 때면 교회에서 북한에 대해 공부하고 북한 사람들에게 대해 배울 수 있는 세미나나 선교학교 같은 기회를 자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 북한 선교부에 대한 생각?

북한선교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교회가 북한선교부를 따로 운영한다는 것이 교회가 그래도 북한 사역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또 같은 탈북민들이 서로 편하게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외로웠는데 함께 고향 이야기도 하고 명절도 함께 보내면서 마음을 달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무리 안에 내가 속해야 한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어요. 남한 출신 청년들과도 교류하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탈북민들끼리만 묶이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4) 교회의 지원에 대한 의견은?

종종 교회에서 받는 오해 중 하나가 탈북민들의 물질적 필요에 관한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탈북민들이 나라에서 혜택을 많이 받지 않느냐며 오해하시기도 하는데 지원이 있는 것은 맞지만 부분적으로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남한에 삶의 기반이 없는 이들에게 생활비, 학비, 주거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재정적 압박이 참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참 감사하죠. 그런데 재정적 지원을 교회 출석 등 신앙생활과 결부시켜서 진행

하는 것은 역효과가 크더라고요. 교회를 신앙이 아닌 지원을 받으러 다니게 되거나 반대로 자신을 지원받는 사람으로만 취급한다고 느끼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구요. 또 장학금 등을 지원할 때 교우들 앞에 세워놓고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관련 주제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물질적인 도움이 아닌, 정서적 교감이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도움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은행 업무만 해도 이 친구들은 하나원에서 잠깐 배우기는 하지만 북에서는 그러한 제도나 기관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거든요. 우리에게겐 어렵지 않은 행정업무도 큰 난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 외에도 부동산 계약이나 보험 가입 및 이용, 학교 공부에 있어서는 리포트나 PPT 발표하는 방법,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식 표현 등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난관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막함을 느낄 때 연락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교회와 교우들이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것에 큰 고마움을 느끼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외 한인 교회의 역할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아요. 해외에서 생활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마음 둘 곳 없는 동포들이 한인 교회를 찾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 신앙을 가지게 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모습이 탈북 청년들의 상황과 유사한 것 같아요.



5) 남한 생활의 고민은?

북한 출신 친구들이 가진 고민도 남한 출신과 비슷해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장래에 대한 고민이 크죠. 그런데 비슷한 고민이지만 그 강도나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나 제 3국에서나 남한에서나 계속해서 생존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게다가 한국행 과정에서 여러 번 생사의 고비를 넘겼다보니 이러한 점들이 계속된 긴장과 불안으로 이어지는 거죠. 친구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모습이 멋진 것 같아요. 지금은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을 볼 때면 저도 도전을 받아요.

6) 남한에서 경험하는 차별이나 편견은?

탈북 청년들은 아무래도 한국 생활에서 탈북민이라는 꼬리표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다고들 해요. 예를 들어서 회사 지원을 위해 이력서를 쓸 때 북한 관련 내용은 쓰기가 꺼려지는 것이죠. 이 내용이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두려운 거예요. 또 말투 같은 것도 가능하면 빨리 바꾸려고 애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 친구는 어릴 때 탈북해서 일반 학교를 진학했지만 거기서 왕따를 당하고 대안학교로 옮겼었는데, 이외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여럿 있다고 해요. 또 의도적으로 차별을 당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는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평상시에 나누는 이야기의 화제 중에는 과거 인기있던 TV프로나 유행했던 노래, 흥행한 영화나 유명한 문학 작품 등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을텐데, 탈북 청년 입장에서는 이야기의 소재들이 하나같이 생소한 것이죠. 그러다보니 해당 주제가 나오면 대화에 참여하기 어렵고 무리 안에서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느낌을 종종 받는다고 합니다.

7) 친구들이 가진 통일에 대한 생각과 비전은?

북에서 온 친구들은 대체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커요. 그렇지만 남과 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몸소 느끼고 있다보니 남과 북이 너무 달라서 통일이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남과 북이 바로 하나로 합치기보다는 여행이나 교류부터 먼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해요.

친구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통일 시대에 허락하신 사명에 대한 소망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많은 북한 출신 친구들이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해요. 고향에 가면 곧바로 말로써 전하기보다는 먼저 삶으로 보여줄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보고 “네 안에 무엇이 너의 삶을 그렇게 살게 하니?”하고 궁금증을 가지도록 말이에요. 그동안 북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특정 사상에 대한 믿음을 강요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교육도 오래 받아왔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도 강요받는다 느끼면 거부감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점들은 교회들도 생각해 볼 이슈가 아닌가요.

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기독탈북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난 데에는 그들과 함께 해주고 버팀목이 되어

준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그리고 복음을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이들의 마음 문을 열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자주 깨닫게 돼요. 제가 아는 한 탈북 청년은 탈북 과정에서 한국에 가기 전 동남아에서 약 7개월 동안 머물러야 했는데, 이 청년을 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고, 그러면서 이 청년의 마음문이 열렸어요. 그 가정에서 처음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그 집에 머물기 시작한 지 약 4개월 정도 지난 후였다고 해요. 그 친구는 만약 자신이 그 집에 가자마자 신앙 이야기를 들었다면 신앙을 가지기 어려웠거나 믿는 척만 했을 것 같다고 해요. 도움받는 대가로 그 종교를 믿어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정에서 4개월을 지내면서 생면부지인 자신에게 과분한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다 보니, 그 부부가 말하는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허투루 들리지 않고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탈북 청년들을 포함한 탈북민 사역은 사역한다는 생각이 아닌 이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교체하고 동행할 때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마음이 들어요. 교회나 성도님들도 너무 어렵게, 부담스럽게, 특별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들과 함께해주시고 존중해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친절을 베풀어주시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3. 결론

여러 연구와 사역자의 이야기를 통해 탈북 청년들을 어떻게 대하고 섬길지, 그리고 남과 북의 다음세대가 어떻게 하나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이상 살펴본 내용을 통해 북한출신 다음세대 사역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이들은 자신에 대해 교회가 보이는 적극적인 관심과 복음 제시를 불편하고 강요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마음의 상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의 환대하는 태도는 긍정적이고 필요하지만,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북한 출신 다음세대의 정착 현황과 과제

신효숙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북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국민대학교)

둘째는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과 공동체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이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효과적인 방향일 것입니다.

셋째는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북한에 대해, 탈북에 대해, 더 나아가 북한선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할 때, 북한 출신 다음세대를 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북한을 향한 비전을 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북한 출신 다음세대는 물질주의적인 남한 사회에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신앙 사이에 혼란과 방향을 경험합니다.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들에게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우리를 신앙적 본보기로 삼아 심적 혼란을 극복하고 더욱 든든한 신앙의 바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할수록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자세와 태도는 꼭 탈북 청년들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교회가 북한을 공부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고, 북한 사람들을 알아가고자 힘쓸 때, 어렵게만 느껴졌던 북한선교와 통일의 비전이 더욱 가깝게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도 생깁니다. 비록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되더라도, 한국 교회가 북한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나아가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으리라 믿으며, 그러한 일이 이 글을 읽는 독자님들과 속한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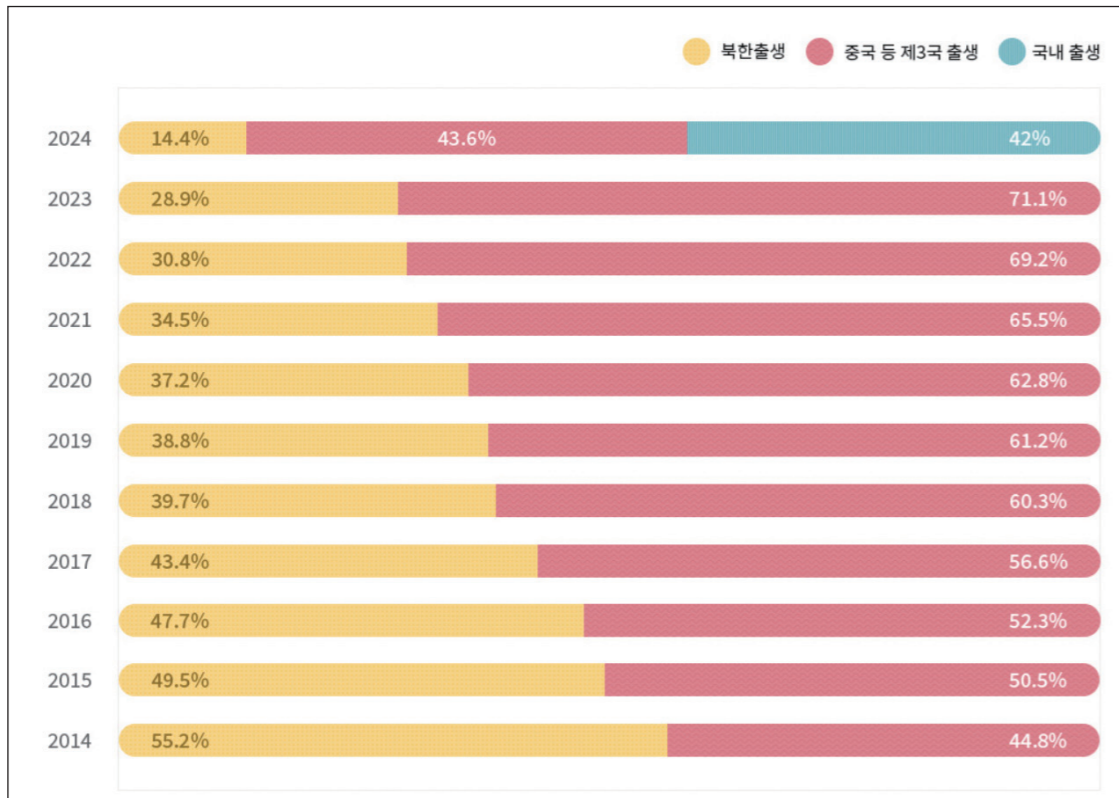
탈북민 1.5세대와 2세대

본격적인 대량 탈북 30여년을 경과하며 우리 사회는 탈북민 1세대, 1.5세대, 2세대가 공존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우리 사회는 탈북민 1세대를 맞이했다. 이들은 탈북하여 중국과 제3국에서 온갖 고생을 겪으며 한국에 들어왔다. 이들 중에 가족 없이 홀로 떠돌다가 입국한 청소년들이 적지 않았다. 탈북민 1.5세대는 탈북민 1세대와 한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2세대의 중간적 존재로서 청소년기를 전후해 부모 따라 입국한 세대이다. 이들은 북한 출생과 중국 출생으로 대별된다. 북한 출생은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젊은 세대이고, 중국 출생은 부모 중 한 명이 탈북민으로서 중국이나 제3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세대를 일컫는다. 최근에는 탈북민 세대 구성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2세대 청소년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동안 탈북민 1세대, 1.5세대 지원정책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탈북민 1.5세대, 2세대의 정착과

교육을 준비할 때이다. 탈북청소년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개관하고 이를 통해 북한 출신 다음세대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탈북의 역사와 탈북청소년 유형

북한 역사에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주민의 대량 탈북이 시작됐다. 평생 국가의 배급으로 살던 주민들은 식량 배급이 중단되면서 굶주림으로 최소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살기 위해 대량 탈북이 이뤄졌고 이중 다수가 중국에 체류했지만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도 3만 4천여 명에 달한다. 2000년대에 매년 그 수가 1,000명을 넘기 시작해 2009년도에는 거의 3,000명에 육박했다. 탈북민의 한국행이 늘면서 전문적인 브로커가 등장하며 김정은 정권 등장 전까지 대량 입국이 이뤄졌다. 이미 탈북해 국내외에 정착하기 시작한 탈북민은 한국으로 가족과 친지들을 부르는 연쇄 이주를 촉발했다. 가족 단위 탈북 사례가 늘어났고 탈북청소년의 수가 증가했다.



<출생지별 북한배경학생 현황. 2024년 4월 기준 북한배경학생 중 북한 출생은 380명(14.4%), 제3국(중국 등) 출생은 1154명(43.6%), 국내 출생은 1111명(42.0%)으로 나타났다 (출처=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탈북 30여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탈북 이주의 규모와 성격뿐만 아니라 청소년 세대의 특징 변화가 두드러진다. 탈북이 증가하면서 중국 체류 탈북민과 그 자녀의 입국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규학교에 재학하는 탈북학생 수는 2005년 421명에서 2018년에는 2,538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학생 수가 줄기 시작했고 코로나 이후 급감하여 2024년 현재 1,534명에 이른다. 청소년 세대 구성의 특징은 북한 출생 자녀의 비중이 줄어들고 제3국 출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이다. 제3국 출생은 2011년 608명(36.2%)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1,249명(50.2%)으로 절반을 넘어섰고 2024년에는 제3국 출생이 1,154명(75.2%)으로 북한 출

생(380명)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¹

탈북민의 자녀 구성에서 최근 주목할 점은 한국 출생의 비중이 증가하는 점이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북한배경학생 통계에 한국 출생을 포함해 제시하고 있다. 북한 출생은 380명(14.4%), 중국 등 제3국 출생은 1,154명(43.6%), 국내 출생 1,111명(42%)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2024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탈북민이 전체의 35.3%이다. 이들의 자녀 출생지를 보면 한국 출생이 78.2%로 가장 많았고, 제3국 출생이 15.9%, 북

¹ 2024년 북한배경학생 통계현황(2024.4월 기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hub4u.or.kr/> 검색일자: 2025년 4월 10일)

한 출생이 5.9% 순으로 나타났다.² 탈북민의 자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이 처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보여준다. 우선, 북한 출생은 자신들이 탈북 1세대로서 홀로 험난한 탈북 과정을 거쳐 한국에 온 경우, 또는 이미 탈북한 가족·친지의 초청으로 한국에 온 경우이다. 무연고이든 부모의 초청으로 온 청소년이든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다. 탈북과 중국 체류, 복송과 재탈출, 학력 결손,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등을 겪으며 결국 한국행을 선택한 경우이다.

한편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에 체류하면서 낯은 탈북민 자녀의 입국이 시작됐다. 탈북여성은 인신매매, 매매혼에 의해 중국에서 살면서 자녀를 출산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무국적자로서 체포와 복송의 위험, 인권 유린과 불안정한 경제활동 등으로 중국에서 가족을 이뤄 정착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결국 신변의 안전과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한국행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중 국경 봉쇄와 감시 시스템이 강화된 이후 탈북민 입국 추이에서 중국에 장기체류한 탈북여성과 그 자녀의 입국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탈북청소년의 추이에는 탈북 동기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창기 자신과 가족의 생계와 생명을 위한 ‘생계형’ 탈북이 주를 이뤘다. 이후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추구, 자아 성취, 가족 결합, 자녀 미래 등 다양한 요인이 추동한 ‘이주형’ 탈북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북한 출신 자녀들은 자신의 미래를 향한 자유, 교육 기회, 직업 선택, 자아 성취 등 더 나은 삶을 위해 탈북과 한국행을 선택했다. 한편, 중국 출생은 자신의 선택보다 탈북민 어머니의 권유가 더 크게 작용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여성이 자녀와의

² 남북하나재단, 『2024 사회통합조사』, 남북하나재단, 2024, 42-43.

재결합 및 자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중국 출생 자녀의 한국행을 선택하도록 했다.

탈북청소년의 정착 현황과 기독교 배경의 대안학교들

탈북청소년은 탈북 과정에서 부모나 가족들의 사망, 이혼, 이별 등을 경험했고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형성하게 되면서 한부모 가정인 경우도 많다. 가족 구성원 간 서로 의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에서 탈북청소년은 한국 입국 후에도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 출생과 중국 출생은 공통적으로 학교 수업 따라가기, 정체성 혼란, 친구 관계, 가정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 남북한은 같은 한국어를 사용해 기초적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체제와 교육 문화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교과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중국 출생 청소년의 언어적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탈북민 엄마와의 관계 회복을 꾀하면서 중국과 전혀 다른 가족, 학교, 사회문화에 적응해 가야 한다.

대량 탈북 초창기 정부 차원에서 탈북민 자녀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사례가 속출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계의 선도적인 교육적 역할이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대안교육의 운영과 교계의 다양한 인적, 물적, 경제적 지원을 들 수 있다. 특성화 대안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를 제외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정규 교육기관 인가를 받는 대안학교는 모두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다. 여명학교, 드림학교, 하늘꿈학교, 장대현학교를 들 수 있다. 또한 비인간 대안학교로는 남북사랑학교, 다음학교, 반



석학교, 우리들학교, 한꿈학교, 미래소망스쿨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학교들은 초창기부터 탈북학생의 교육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대안학교를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독교계 민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학령기 초과자, 학습 결손, 심리정서적 부적응, 탈북민 가정의 돌봄·교육 부재 등을 고려해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안교육, 방과후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을 운영해 왔다.

탈북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와 학교 적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가 이전에는 북한 출생에 집중되었다면 최근 제3국 출생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동안 교육지원 정책은 출생국에 따라 교육 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뤄졌다. 북한 출생은 보호대상자로 모든 교육지원이 이뤄지지만, 제3국 출생은 일부가 지원되고 한국 출생은 일반아동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북한 출생 대비 중국 출생 교육지원의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그 결과, 2024년에 제3국 출생에 대한 교육지원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다. 대학교 특례입학, 대학 학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탈북민 자녀 구성 추이에서 한국 출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교육 논의도 활발해질 예정이다. 한국 출생은 탈북이라는 국가 이동 및 정착과정에서 언어, 문화적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 탈북민 엄

마의 재북과 탈북 경험 및 국내 정착 과정은 자녀의 언어, 신체발달, 문화적 감수성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육지원 정책은 더 이상 학생의 출생국을 기준으로 나뉘는 정책이 아니라 특수한 취약 계층인 탈북민 가족이 교육의 각 단계에서 소외받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는 가족 단위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³ 탈북민 가족의 범주에서 북한 출생, 중국 출생, 한국 출생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기독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따라서 북한 출신 다음세대 사역이 나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기성세대와 다른 다음세대의 특성 이해하기

첫째로, 탈북민 1세대와 어린 시절에 한국에 와서 성장한 북한 출신, 중국 출신 탈북민 1.5세대,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탈북민 2세대의 삶과 신앙적 경험이 전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기성 탈북민과 장마당을 경험한 젊은 세대의 특징은 다르다. 북한 출생과 중국 출생도 다를 수밖에 없다. 기성세대 탈북민은 북한체제에서 받은 주체사상과 집단주의 의식이 내재되어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물질중심적 가치관과 개인주의를 내면화하고 있다. 탈북민 자녀 세대는 한국의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불안정성과 생존주의에 맞서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는가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초창기 탈북민 중에는 탈북과정에서 중국 혹은

제3국에 ‘미션홈’이라는 기독교 피난처나 목회자들을 통해 신앙을 접할 수 있었다.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탈북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금식, 예배, 통독을 통해 이들을 양육했다. 탈북민 구출사역에 선교단체 혹은 기독교인이 담당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등장,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중간의 이동은 물론 중국 내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2018년 이후 중국은 자국 내 한국 선교사들을 대부분 추방했다. 중국의 안면인식 등 디지털 감시와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서 중국 내 탈북민을 위한 기독교 피난처가 거의 사라졌다. 동남아 제3국을 중심으로 몇몇 미션홈들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탈북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을 체험하거나 훈련과정을 거친 탈북민 입국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독교를 경험한 탈북민 수의 급감은 한국 사회에 탈북민 기독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탈북민 사역은 이전과 같은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갱신’에 초점을 맞춰야 함이 제기되고 있다.⁴ 북한 다음세대 사역은 탈북민 가정의 자녀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가족 전도와 질적 갱신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 탈북민 내에서 세대 간의 특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탈북청소년과 청년 세대를 한국 사회에서 복음으로 잘 양육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물질적 풍요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 접할 수 있는 가정, 학교,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북한 다음세대의 정체성 재구성 인정하기

둘째로, 우리 사회는 북한 출생, 중국 출생 청소년이 각자의 출신 배경과 교육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자기 성장을 이루도록 기다려줘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통합’을 말하지만, 실제 탈북민의 정착에는 ‘동화’, ‘적응’이 지배하고 있다. “북한은 다 잊어버리고 남한을 배워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하곤 한다. 문화적응모델을 제시한 베리(J.W.Berry)는 이주민의 문화 적응을 주변화, 분리, 동화, 통합의 4가지 유형으로 제시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통합’을 꼽는다. 탈북민의 경우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습득하는 상호작용이 이뤄질때 비로소 ‘통합’됐다고 할 수 있다.⁵ 북한, 또는 중국을 고향으로 둔 한국 사람임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탈북민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그들의 곁에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주도적으로 재구성해갈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시간적인 여백을 주며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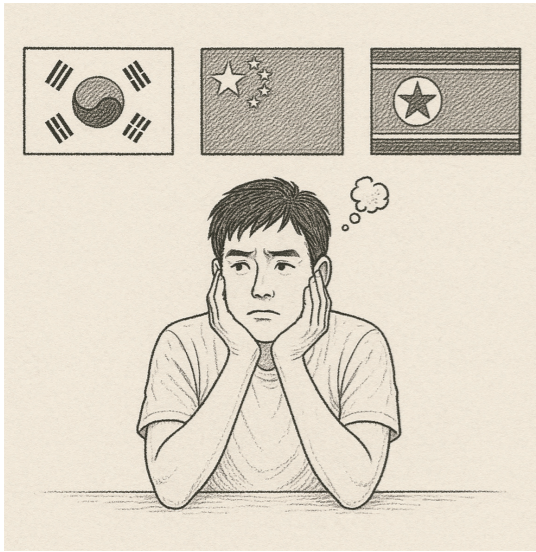
북한 출생은 남과 북을 모두 경험한 통일에 이바지할 소중한 인재이다. 이들이 겪는 학업의 어려움, 정체성의 혼란, 언어·문화의 차이, 가족·친구 관계, 경제적 어려움 등이 남북한 교육 통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중국 출생 1.5세대는 탈북민 엄마를 따라 한국에 들어와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하다 보니,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 탈북민 엄마는 공민권이 없거나 복송 위험으로 북한 국적임을 숨겼고 조선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엄마와 의

3 김지혜 외,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23, 267.

4 김의혁, “탈북민 사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한반도평화연구원 특별공동포럼 자료, 2024.12.16., 36.

5 신호숙, “한반도 평화교육의 방향 탐색: 남북한 주민 갈등과 통합교육을 위한 제언,” 『기독교와 통일』, 제14권 1호, 2023, 30-31.

6 김의혁, 앞의 논문, 32.



사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중국 가족과 교육환경에 있다가, 이와 전혀 다른 한국의 언어, 교육, 학교생활에 적응해야만 한다. 특히 우리 사회는 한국 정체성을 무의식적으로 강요함과 동시에 부정적 중국관과 적대적 북한관이 지배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중국 출생의 정체성 갈등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중국 출생이 중국의 교육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한반도 통일이 주변 강대국과 긴밀히 연계되는 상황에서 중국 출생이 남과 북, 그리고 중국을 잇는 통일 준비 과정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⁷ 이런 점에서 중국 출생의 경우에 해외연수와 유학지로 중국과 관련을 맺고, 중국-북한선교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우리 사회는 한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2세대가 부모의 고향과 문화에 자긍심을 갖고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갖도록 지지해줘야 할 것이다. 한국 출생은 뒤늦게 부모가 북한 출신임을 알게 되어 북한의 언어, 문화에 호기심을 갖고 통일 문제

에 관심을 가진다. 부모 나라에 대한 관심이 통일 한반도에 대한 관심과 비전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닌다. 북한에 고향을 둔 한국 시민, 중국에 고향을 둔 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북한, 중국, 한국 출신의 구분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안에서 서로 소통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북한 다음세대가 각자의 특성을 반영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아정체성을 통합해 가도록 응원하고 지지해줘야 할 것이다.

상호문화 이해교육에 기반한 남북한 성도의 만남과 가족중심 지원

셋째로, 우리 사회는 탈북민 가족, 자녀 세대와 ‘상호문화 이해’ 교육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관계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상호문화 이해가 무엇인가. 다문화 이해가 차이와 다름에 대한 상호 인정과 배려라면, 상호문화 이해는 서로의 차이를 만남과 접촉을 통해 상호 이해하고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추구한다. 문화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접촉과 상호 변화가 중요하게 고려된다.⁸ 남북한 주민은 일방적 통합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상의 공간과 매일의 삶에서 서로의 다름과 개별성을 자연스럽게 대면하며 상호 접촉을 통해 통합을 이뤄가야 한다. 즉, 교회공동체에서는 예배, 순모임, 신앙훈련 등에서 남북한 성도가 상호문화 이해에 기초해 접촉하고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

북한 출신 다음세대 사역에서 가족중심 지원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탈북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가족중심의 지원과 함께


가족의 기능이 회복돼야 한다. 탈북민에게 있어서 가족은 탈북과 이주, 재정착 과정에서 삶을 지탱해주는 원천이면서도 정착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기도 하다. 이는 자녀 세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자녀들은 가족의 이산과 재결합 과정에서 가족구성원 간 언어소통과 가치관 차이, 관계 회복, 정체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교회공동체가 탈북민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고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상담과 교육, 캠프 등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상호문화 이해에 기초해 한국 가족과 탈북민 가족의 만남이 이뤄지고 회복과 성장을 상호 격려해 주는 관계가 돼야 할 것이다.

기독교적 배경의 통합형 대안교육의 확산

넷째로, 남북한 청소년이 함께 교육하는 기독교적 배경의 통합형 대안교육의 확산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신앙을 갖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그런데 기독교 배경의 학교들은 기독교 교육을 직접적으로 내걸지 않지만 학생들 개개인을 깊이 이해하려는 교육 철학의 바탕에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다. 따라서 탈북과 가족 해체 등 상처와 고통을 겪은 학생들은 학교공동체에서 신앙을 체험하고



삶의 목적을 찾기도 한다. 예수님을 알고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고 자신에 대한 존중함과 자존감을 회복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계는 기독교대안학교와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탈북학생 수의 감소로 대안학교의 점진적 감소가 현실화될 시점에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전환기 대안학교는 최소화하고 일반학생과 탈북학생이 함께 교육받는 통합형 대안교육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남북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통합형 교육과정에 기반한 대안적 학교를 구상하고 운영해야 한다. 일반학생과 북한 출신 다음세대가 각자의 정체성을 고민하면서 함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통일 한반도, 복음 통일을 준비해 가야 할 것이다. 

7 신호숙, 『분단시대 탈경계의 동학: 탈북민의 이주와 정착』, 명인문화사, 2023, 199.

8 신호숙, 위의 책, 291-301.

탈북청년을 위한 교회의 역할

경 선 미 (송실평화통일연구원 전문위원)

I. 들어가는 말

북한의 MZ세대, 즉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 층은 외부 문화와 정보에 대한 접근이 늘어나면서 북한 사회와 외부 세계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청년들은 해외 노동자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 과정에서 외부 세계를 직접 경험한 청년들은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을 품고 탈북을 결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회가 탈북청년을 지원하는 일의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는 탈북청년 개인적인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 규모의 자연 재해를 통해서 나의 안전과 생명이 가족, 사회, 국가, 전 세계 인류와 연관 되어있다는 ‘상생 공존의 가치’를 체감해 가는 중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회는 성경의 원리인 ‘한 사람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현재 북한 사회에 정착한 탈북청년 한 사람의 삶의 질이 전 국민 삶의 질과 연계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남북한 주민을 둘러싼 자연과 생태환경, 국가 안보 환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교회가 탈북청년 한 사람의

남한 사회 정착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민하는 일은 범사회적이고 국가적이며 세계적인 일이다.

II. 탈북청년을 위한 교회의 역할

1. 정서적 회복과 정체성 형성 지원

탈북청년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영유아기를 보낸 세대로서, 부모의 사망이나 가족 해체의 경험으로 인해 초기 애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세대다. 이러한 탈북청년 세대가 남한 사회진입과 더불어 곧바로 마주하게 되는 현실로서의 사회, 문화적 환경의 총체적 전환과정은 이들의 정체성이 이중으로 흔들리는 구조적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탈북청년의 훼손된 자아 정체감은 시간을 두고 회복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정체감 회복 경험의 부재 상태로 남한 사회에 적응하게 될 경우, 그들의 건강한 미래와 행복은 보장되기 어렵다. 탈북청년의 남한 사회진입 이후 정체성 발달 과정을 다룬 연구¹⁾는 그들의 정체성 발달 과정을 다음의

1 “북한이탈 청소년의 기독교 정체성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경선미, 2020)”



네 단계로 정리하였다.

첫째, ‘북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부정’ 시기이다. 남한 사회진입 초기 탈북청년의 북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현재의 나를 위해서 없애고 버려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남한 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사회적 편견과 차별, 그리고 적대감을 경험하면서 가능한 북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완벽한 남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

둘째, ‘기독교적 정체성으로의 재구성’ 시기이다. 남한문화 모방에 몰입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남한 사회의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에 함몰된 탈북청년들에게, 교회 생활에서 주어지는 성경적 세계관이 점차 그들 삶의 가치판단 기준이 되어감에 따라 남한문화 따라하기는 어느 정도 멈추게 되고, 국가적 기준의 정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으로의 재구성을 시도한다. 이에 따라 정체성의 혼란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만, 그동안 이들 삶의 상처 경험에서 비롯된 ‘정체성 훼손’의 문제는 치유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셋째, ‘정체성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수용’ 시기이다. 탈북청년이 겪었던 심리적 어려움은 주변 공동체의 정서적, 영적 지지를 통해 자존감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의 삶에서 흩어져 있던 삶의 조각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라는 큰 그림 안으로 모여지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북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수용하고 자신들의 삶에 두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이와 더불어 내면의 치유가 일어난다.

넷째, ‘통일의 중간 지대’로서의 정체성의 확립 시기이다. 탈북청년의 신앙이 자신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을 향한 실천적 영역으로 열리게 되면서, 특성상 남북을 모두 경험하였고 남북한의 문화 모두를 잘 이해하고 있는 자신들을 남한 사회에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통일의 중간 지대’로서의 소명에서 발견하고, 고향 사람들의 영적인 구원과 고향 땅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자신들의 진로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시작된다.

급속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탈북청년들은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재난과 개인적인 삶의 고통과 고난을 겪어낼 수 있는 강한 자기 주도적 역량이 있어야 한다. 이제는 목사님도 집사님도, 부모님도, 선생님도 그 누구도 그들에게 명확하고 확고하게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정답을 제시해 줄 수 없다. 따라서 그들 각자가 자신들의 현실적인 삶의 정황들과 문제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교회가 물질적 위로와 격려의 차원을 넘어 탈북청년의 주체적 역량의 기초가 되는 정서적 회복과 정체성 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2. 정체성 발달단계에 따른 영성 교육과정 제공

탈북청년의 정체성은 신앙발달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해 간다는 연구(경선미, 2020)에서, 그들의 신앙발달에는 일종의 단계적 발전 과정이 존재하였는데, 1단계에 가까울수록

정체성 혼란이 강하고 미숙한 반면, 4단계로 갈수록 정체성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성숙하며 능동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탈북청년의 신앙발달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각 발달단계에서 시기 적절하게 투입되어야 할 영성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에는 한 상처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훼손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영성 교육자 예수님의 모습이 돋보인다. 본문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여인은 당시 유대 사회가 가장 무시하고 상종치 않았을 뿐 아니라,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소외당하고 무시당했던 부도덕한 여인이었다.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중동지역 정오의 뜨거운 태양 속을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힘겹게 걸어 야곱의 우물가에 이르렀다.

1단계) 마음 열기: 공동체의 정서적 지지

예수님은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상처 많은 여인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 “저에게 물 좀 주시겠습니까?”(요 4:7) 사실 예수님은 목마를 필요성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한 목마른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여인보다 더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한 모금의 물을 청하신다. 이것이 상처 입은 죄인의 마음 문을 열게 하는 예수님의 영성 교육과정 제1단계이다. 그동안의 상처 경험으로



인해 굳게 닫힌 탈북청년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한 공동체의 돌봄과 정서적 지지와 같은 맥락이다.

2단계) 대화의 물꼬 트기: 친교적 만남을 통한 관계 맺기

예수님은 현재 자신과 여인의 공통 관심사인 물을 매개로 여인과의 대화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께 차갑게 쓰아붙인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고 하나요?”(요 4:9) 이는 표면상 강한 거절 같지만, 소외된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한 유대인 남자에 대한 놀라움과 동시에 반감의 표현이다. 이런 여인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이 물을 부탁하는 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요 4:10) 상대방과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내어 대화의 물꼬를 열어가는 예수님의 멘토링은 친교적 만남을 통해 탈북청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3단계) 예수님 주목하기: 소모임을 통한 말씀 적용훈련

예수님에 대해 무지한 여인은 조상 야곱과 비교하며 예수님의 제안을 무시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을 끝까지 포기치 않고 여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생수에 대한 소개로 여인 안에 감추인 영성을 깨우신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요 4:13-14)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에 솔깃해진 여인은 예수님께 생수를 요청한다. 예수님 영성 교육과정 제3단계는 멘티 안에 숨어있는 영성을 깨워내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 몸담고 있는 있으나 말씀의 내면화를 경험하지 못한 탈북청년이 말씀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4단계) 죄 문제 드러내기: 회개를 통한 말씀의 내면화 과정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요 4:16)고 호통치신다. 남편 문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여인의 치부임과 동시에 여인이 영생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여인의 죄 문제이다.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이미 다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한편 놀라면서도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요 4:17)라고 회피한다. 예수님은 여인의 거짓 아닌 거짓말을 인정하시면서, 그 간 여인의 삶을 영적으로 재조명해 주신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과거 네게는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참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요 4:18) 죄에 대한 분명한 지적과 회개로의 촉구, 이것이 예수님의 제4단계 영성 교육과정이다. 이는 말씀을 통해 드러난 탈북청년 내면의 상처가 운명이 아닌 죄 문제로 인식되면서 탈북청년 안에 말씀이 내면화되는 경험이다.

5단계) 예수님을 참 경배의 대상으로 영접하기: 예수께 삶의 주권 이양

영적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에 관하여 묻는다. 예수님은 ‘예배 장소’보다 ‘예배 대상’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시며, 자신이 여인의 참 예배 대상이 되심을 밝히신다.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이다.”(요 4:26) 그동안 인간의 한계적인 사랑 속에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려다 부도덕한 삶에 지쳐버린 여인의 인생

에 남겨진 것은 높고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과 사람들로부터 받은 내면의 상처뿐이다. 이제야 인생의 참사랑과 경배의 대상을 찾은 그녀는 심령으로부터 기쁨과 환희의 영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한다. 예수님을 참 경배의 대상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영성 교육과정의 5단계이자 기독교 영성 교육의 최종 목표이다. 삶의 주권이 예수님께로 이양되기 시작하면서, 탈북청년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내적 자유와 풍성함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6단계) 선교 사명: 세상을 향한 신앙의 실천

영생수를 맛보고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과 환희를 주체하지 못한 여인은 과거 자신의 부도덕한 삶으로 인해 피해만 다녔던 동네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마리아지역 제1호 선교사가 된다.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만난 여인에게 사회가 그어놓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남자와 여자, 의인과 죄인의 경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탈북청년의 개인 신앙이 북한의 동포와 세상을 향해 확산되어 가는 경험과 같은 맥락이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이어서 영적으로 꽉 막혀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참 남편이요 경배의 대상으로 알아보기까지, 예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여인을 방향성 있게 다음 단계로의 영적 성숙으로 이끌어 가셨다. 결국, 기독교 영성 교육과정은 지속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생명체의 발달이 유아기와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쳐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생명 발달의 원리와 일맥상통한 것이다. 교회는 단기간에 열매를 거두려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생명 발달의 원리에 따라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탈북청년의 신앙적 성숙을 위한 양육의 십자

가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3. 소모임을 통한 리더십 세우기

탈북청년의 신앙적 안착과 성숙을 돕기 위한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은 ‘성경 공부 소모임’과 이러한 소모임을 영적으로 이끌어 갈 ‘탈북청년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탈북청년이 남한에서 교회를 떠나는 현상은, 신변 위협과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제3국에서처럼 헌신적으로 돌보는 사역자가 없거나 교회 공동체 내 소통의 어려움과 이질감 등과 같은 외적 요인들이 많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까지 억눌려왔던 인간 본능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다채로운 여건들이 남한 사회 안에 제시되어 있고, 탈북청년에게 갑자기 주어진 자유를 주체할 만큼의 영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북 다음 세대를 위한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은 그 어떤 유인책이나 프로그램보다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맛보았기에 진리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제자 양육’에 있다.

‘성경 공부 소모임’은 탈북청년과 작고 깊은 관계 맺기에 매우 적절한 교육 방법이다. 이러한 소모임을 통해 탈북청년은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하는지를 배우면서 ‘말씀의 내면화(신앙적 성숙)’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숨 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지속적인 말씀 양육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적 멘토와의 자유로운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멘토링 형태의 ‘성경 공부 소모임’ 형태가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중 설교의 시대에서 ‘작고 깊은 관계’ 맺는 소모임 형태의 사역으로 그 방향이 바뀌었을 때, 이러한 소모임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세

울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모임을 통해 세워진 건강한 정체성과 신앙적인 성숙을 경험한 탈북청년 리더십을 통해 지역별 소모임을 이끌어가는 형태로의 사역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4. 건강한 공동체 정서 형성

탈북청년의 정체성 형성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정서의 형성을 위해 공동체와의 소통 방식의 변화, 즉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영향을 주려는 방식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의 ‘상호 보완적 관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사회와 공동체에 속한 아이들의 양육 과정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참여하게 된다. 마치 유아가 자라는 과정에서 건강한 부모의 존재와 안정적이고 일관된 상호작용이 중요하듯,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친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성의 발달을 이루어 가도록 상호 돕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초기 신앙의 경우 또래 신앙 친구들과의 친교적 만남이나 인격적인 관계성에 기초한 멘토링 형태의 영적 돌봄 체계가 매우 중요한데, 멘토와의 교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스며든 기독교적 가치관이 세상이 주는 영향력을 이기고 건강한 신앙인의 정체성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데 내적인 동력으로 작용한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은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와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다. 특히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에서 주체사상 교육을 받고 자라온 탈북청년의 경우,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더 힘들고 장기화되기 쉽다. 따라서 탈북청년의 정체성 발달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체의 건강한 정서적 분위기 형성을 위한 고민과 더불어, 탈북청년도 도움이 필요한 다른 구성원을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지닌 리더십으로 훈련해야 한다.

5. 진로 설계와 실천을 위한 지원

탈북청년은 남한 사회에서 그들의 디아스포라(Diaspora)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귀환의 꿈을 현재 자신들의 진로 설계를 통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에서 익힌 기술과 자본을 통해 통일 후 고향에 진출하고자 하는 이들의 꿈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발전에 매우 유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청년은 체제가 다른 남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진로에 대한 정보 취득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탈북청년들이 의미 있고 전망 있는 직업을 가진 자유로운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귀환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교회 내부 또는 협력 기관과 연계한 장학금 지급이나 직업 체험의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교회적 차원에서 탈북청년들의 진로 설계와 실천을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진로지도 전문가와 북한 전문가, 청소년 교육 전문가집단으로 이루어진 ‘진로 컨설팅(Career Consulting)단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들의 컨설팅 내용은 적성검사를 통한 자신에 대한 이해,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감각, 진로 진학

정보의 제공, 진로 설계와 준비 지원 등이 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탈북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들이 진로 장벽을 극복하고 자신의 진로를 꾸준히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격려와 실질적인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다.

III. 나가는 말

탈북청년은 통일의 중간지대(Mid-field)와도 같다. 미드필더(Midfielder)는 공격수와 수비수 사이에서 플레이하는 축구팀 선수를 일컫는 말인데, 미드필드의 지원을 잘 받지 못하는 공격수들은 공격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되고, 미드필드의 지원을 잘 받지 못하는 수비수들은 힘들게 수비해야 한다. 따라서 미드필더들은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보다도 축구 경기의 승패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탈북청년은 현재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의 접촉을 통해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중개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 체제를 소리 없이 흔들고 있지만, 앞으로의 통일 과정에서 그들은 통합된 한반도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결정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지금 의사,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에서 점차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동향은 한반도 정세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남한 사회 각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의 꿈을 격려하고, 진로 설계와 준비를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외적인 지원과 더불어, 그들 삶의 전반적인 통합기능을 하는 영성의 발달을 돕는 일이야말로 이들이 불확실한 미래의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갖도록 하는 일이다. 🙏

NK 다음세대 사역을 위한 우리의 자세와 과제

전 명 희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

탈북민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지 2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었고, 다양한 서비스도 마련되었다. 한국 교회 내에서도 탈북민 사역이 발전하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워 탈북민들을 섬기고 있다. 이제 탈북민들은 더 이상 새로 온 손님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 탈북민들이 대거 국내에 들어온 지 2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의 다음세대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다. 선교회의 제안으로 글을 쓰기로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글을 써야 할지 몰라 고민이 되었다. 그저 이 일들을 하면서 연구했던 내용들과 저술과 연구 과정에서 만난 탈북 청년들을 떠올리며, 이들의 신앙과 삶, 그리고 이들을 섬기기 위한 한국교회의 미래의 과제에 대해 간단히 조명해보고자 한다.

탈북 1세대, 1.5세대, 그리고 2세대?

2024년 12월, 한반도평화연구원과 온누리교회

회 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포럼에서 주제 발제를 하신 송실대 김의혁 교수는 “탈북민 사역 1.0 시대는 마무리가 되고, 이제 향후 30년을 바라보는 탈북민 사역 2.0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표현하였다¹. 탈북민 1.0 시대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에서는 신앙을 가질 수 없는 탈북민들이 탈북과정과 남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화심과 삶의 변화가 강조되었다. 이후 부모세대들이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면서 유년기를 북한에서 보내다가 남한에 들어온 1.5세대들, 그리고 중국 등 제3세계에서 지내다 어린 시절 한국에 들어오거나 아예 한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은 이민자들과 같이 탈북민 2세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탈북민 사역 1.0 시대는 탈북민들의 화심과 변화에 초점을 많이 두면서 문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다소 일방적 사역이 많았다고도 볼 수 있다. 탈북민 2.0 시대에는 무엇이

¹ 이 글에서는 <김의혁(2024), 탈북민 사역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교회와탈북민어떻게동행할까?”, 한반도평화연구원-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특별공동포럼자료집>의 내용을 참고하였고, 토론으로 참여했던 저자의 글도 함께 참고하여 글을 적었음을 밝혀둔다.

중요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어떤 과제 위에 놓여있을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탈북민 사역의 2.0 시대를 위해 잠시 그동안 해왔던 연구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앙의 멘토가 필요한 1세대 청년들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홀로 탈북을 한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홀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 1세대의 특징을 가진 청년들은 어른이라는 안전망이 없이 줄곧 세찬 바람을 맞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신앙에 있어서 부모를 포함하여 좋은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멘토들이 너무나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의사 결정을 앞두고서 신뢰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두고 자신들의 삶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 나가야 하는 상황 중에 있다. 이때 이들은 ‘내가 알아서 해라’라고 끼어들지 않는 이들로 인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거나, 너무 강한 카리스마로 ‘내 말대로 해라’라고 해서 자율감을 헤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무엇보다도 삶에서의 안정감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러한 공간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줄 보듬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에게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좌충우돌하면서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 섰을 때 긴말하지 않고 포옹하고 안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강요가 아니라 선택을 존중하면서) 어른들과의 접촉이 필요하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세세하게 가르침을 얻었던 것과 같이 신앙의 극적인 경험들을 해석해 내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위해 기독 공동체는 강압과 자율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진정한 성인이자 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줄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희망의 장소이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회들, 우리의 기독 공동체들이 이들의 성장을 잘 기다려주고 있는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미성숙한 신앙’에서 ‘믿어지는 하나님’까지의 1.5세대들의 경험

몇 해 전 20대 탈북 청년들의 신앙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중 북한에서는 생소했던 유일신 하나님을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소개받게 되어 신앙에 입문하게 된 이들의 경험이 기억난다. 이들은 부모의 신앙적 간구에 의한 응답으로 남한에 오게 되었기에 ‘이미 믿도록 정해져 있는’ 상태로 한국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경우이다. 남한 사회에서 신앙의 터를 닦은 탈북민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재북 가족들이 남한으로 오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며, 그 응답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전하게 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들이 삶으로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을 구현해 내기란 쉽지가 않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신앙을 강요하는 부모와 마음이 열리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전전공공하는 자녀 사이의 전형적 갈등을 보여주는 것 같은 모습도 나타났다. 질적 면담 중 나온 내용 중 한 장면이다.

언니는 안 가면 무조건 데리고 가서 화내고 하니깐 언니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중략) 언니가 교회 리더였는데 처음에 6개월

정도 그 신앙 교육, 그런 걸 했었어요. 그냥 하면서 몇 번은 너무 안 하고 싶어 가지고 규칙적으로 계속 교육을 받는 게 싫어서...

한국 교회도 처음 믿음을 가진 1세대 신앙인들은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을 가졌지만,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므로 그들이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때로는 역효과가 나게 되고, 오히려 신앙에 대한 강요와 두려움을 심어주는 경향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북한에서 오래 살지 않았다 해도 가족을 통해 내려오는 북한식의 삶의 방식은 신앙적 측면에서 사랑과 용서, 따스함, 무조건적 은혜 이런 단어들 보다는 율법, 징벌, 강압 등의 방식과 더 쉽게 연합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가족이 삶 속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자신만의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지는' 시간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듯 기독교인 1.5세대와 2세대들의 고백 속에는 스스로를 '미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씨앗'은 뿌려졌지만 씨가 나고 열매 맺어지지 못하고 표류하는 시간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모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인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복을 주는 하나님에 대



한 오해, 신앙으로 인한 가족 갈등, 교회 내 소외감 등으로 인해 '신앙적 위기'를 겪었다고 한다. 탈북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신앙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닌 긴 여정의 과정이다. 탈북이라는 생사의 경험, 남한 적응과 문화 충격, 심리적 트라우마까지 고려하면, 신앙적 성장이 견고해지기까지 천천히 단단해지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비단 탈북민의 세대 간 문제만이 아닌, 모든 면에서 '빨리빨리'를 외치는 한국의 일면으로 남한 교회에서도 보여진다. 더딘 성장과 방향, 이 과정에서 좌절을 겪는 이들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면서 먼저 된 자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인해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수용이 신앙 발달과 자기 발달을 통합하게 해주며, 그들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확장되어 가게 한다. 이러한 점을 우리 모두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다.

다음세대의 사역은 '공감과 소통' 속에서 서로 배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아우르는 사역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어야 할까? 통일시대를 위해 기독교는 어떤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할까?

첫 번째로 '공감과 소통'의 의미를 가족관계에 적용하여, 부모-자녀를 함께 아우르는 가족 중심의 탈북민 사역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누구도 예외 없이 탈북민들은 탈북 과정에서 가족의 상실, 이산, 재결합 등의 가족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가족 내에서 마

음은 잘 나뉘지지 않고, 이혼 가족이나 재혼 가족에서는 갈등도 심하다. 앞서 마음을 열지 못한 채 입국한 탈북민의 자녀들의 경험 또한 가족 안에서 변화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서서히 변화의 물꼬가 싹트는 것이라 생각된다. 변화의 시작은 가족이어야 하고, 가족 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거나 부모로부터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면 다음 세대는 보다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다. 한국 사회가 가족 중심의 사회인 것처럼 탈북민들에게 있어서도 가족 간의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적-실제적 자원을 형성하는 일이며, 관계 속에서 상처와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우리집은 남한에 있는 북한 같아요!' 혹은 '나는 집에서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던 탈북 청소년들의 말이 아직 귓가에 스치는데, 탈북민들의 가장 아픈 지점, 상실과 갈등, 고통이 혼재된 가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으며,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소그룹 부모 교육 등을 통해 가정을 세우는 일이 탈북민 사역에도 더 잘 스며들게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다음 세대의 사역은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서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저자는 최근 기독교 탈북대학생 5명과 함께 「서로서로 배우는 중입니다」라는 에세이를 출간하였는데, 이 책에는 '캠퍼스에서 나는 탈북대학생들의 솔직담백 토크북'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지난 10여 년간 캠퍼스에서 탈북학생들을 돕는 일을 해왔었는데, 처음에는 주로 무엇을 도와야 할까에 초점을 맞춰왔다. 특히 초기 1세대 탈북학생들은 공부는 해야 하는데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영어도 안되고, 총체적 난국 속에 있는 것



만 같았다. 학교에서는 교회들을 연결하여 장학금을 마련하고, 공부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여름 겨울 캠프를 열어 영어, 수학, 전산 등에 대한 기초 학습을 지원하였다. 학생들을 모아 미국으로 필드트립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들에게 결핍이 많기에 그런 것이 필요하기도 하였고, 그래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안전한 장소가 되어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학생들은 이미 해외에 다녀온 친구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영어도 그럭저럭 잘한다.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까라는 고민을 여전히 하던 저자는 어느 순간 '나 자신'에게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으며,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르게 되었다.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았다. 학생들은 '공감'과 '소통'을 중요한 키워드로 삼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원하며, 그러면서도 탈북민인 것이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 혹은 통일을 위한 역군으로만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 자신들의 일부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소통하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들과 같은 탈북 청소년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감과 소통의 하나의 방법으로 글을 쓰기로 하였고,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서 밤새 막장토론을 하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8)

김 열 매 성도

기도 하였다. 한국에 와서 살면서 들었던 생각, 자신에 대한 이해, 가족에 대한 생각, 신앙에 대한 생각, 통일에 대한 생각...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져갔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글이 엮어졌다. 이 작업을 하면서 저자가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 같다. 이들에게 배울 점이 참으로 많고, ‘탈북민’이지만 ‘한 인간’으로 균형 있게 바라보아야 함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 정말 그렇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만 받고 가르침만 받는 존재들이 아니었다. 우리가 서로 배우고 힘을 주는(empowering) 시너지를 만들어 내려고 할 때 탈북 청년들은 정체성을 세우게 되고, 주체성을 확장해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그들의 성장이 남한의 청년들과 함께 상생하며 통일을 꿈꿀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 믿고 있다.

최근에 만난 탈북 청년 한 명이 “저는 차라리 북한계 한국인이라고 불려지면 어떨까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한국에 와서 자신의 정체성이 붕 떠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자신이 탈북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탈북민과 접촉도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통합이 되면서 점차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고민할 때 미국에서 만난 어떤 한국 사람이 자신을 “Korean American”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들었고 참으로 신선하다고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그냥 한국인도 여러 한국인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곤 하였다고 한다. 베트남에서 온 여성이나 그 자녀들을 베트남계 한국인이라고 부르고, 북한에서 온 이들은 북한계 한국인이라 불리며, 제3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온 아이들도 그저 그런 모습 그대로 수용되며 다양한 한국인이 되면 단문화(mono-culture)가 좀 넓어지고 상호문화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이중적(혹은 삼중적) 정체성을 수용하게 된 사람들은 색깔이 분명치 않은 사람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색깔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라는 단어만으로 모든 것이 획일화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러티브 스토리가 경청되며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다음세대 사역의 핵심일 것이다. 그것은 남한에서뿐 아니라 북한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도 같은 방향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방향적인 통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그들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라는 섬김의 마음 말이다. 이들이 자신의 삶의 리더로 성장해가며, 그 경험을 다시 나누는 순환이 일어나길 고대해 본다.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는 그렇게 될 것이며 그 힘이 결집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으며 두서없는 글을 마무리한다. 🙏

어느덧 아이가 6살이 되었지만, 탈북에 대한 갈증은 일상을 살면서도 순간순간 찾아왔습니다. 세 가족의 생존을 위한 삶의 고달픈 몸부림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질 수 없는 것만 같습니다. 첫 탈출을 계획했던 때로부터 어느덧 2년이 더 지나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탈북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봄학기 수업이 끝나고 여름방학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교육 강습을 받아야 했습니다. 보름 동안의 강습이었기 때문에 강습비용이 필요했고 저는 그 강습비를 구해오겠다는 명분으로 북쪽으로 갈 계획을 짰습니다. 함경북도 바닷가 마을에 사시는 고모댁으로 가서 바다 해산물을 구입해 오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싼 가격에 물고기와 미역을 사오면 평안도 내륙지방에 와서는 그것을 팔아서 몇 배의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계획을 좋게 여기고 “그럼 그렇게 하라마”라며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고모댁까지만 갈 수 있다면 그 후에 조-중 국경까지는 얼마든지 혼자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아이는 떼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갔다 오겠다고 이야기를 해 두었습니다.

북한에서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통행증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통행증을 발급 받으러 가기 바로 전날, 남편이 학교에서 오전수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나는 북쪽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같이 가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저는 너무 좋아 곧바로 “그래요, 함께 가면 더 많은 양의 고기와 미역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같이 가요.”라고 호응했습니다. 남편을 두고 가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저에게는 너무 반가운 말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쪽으로 올라가서 탈북을 할 생각이라는 것은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떠나기 전부터 그런 말을 했다가는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북쪽에 다녀오겠다는 허락을 받기 위해 출근하기 전 이른 아침부터 저와 남편이 함께 교장선생님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인사를 하고 들어가 앉아서 찾아오게 된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름에 남편이 교사 강습을 가려면 15만원의 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린 지금으로써는 그런 돈이 없다, 그래서 땅에 봄씨앗이 들어가기 전 (농사를 시작

하기 전에 북쪽 지역에 사시는 고모집에 같이 가서 바다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사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돈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교장선생님께서서는 근심이 있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북쪽까지 가도 괜찮나?” 교장선생님은 보위부에서 내린 지시가 맘에 걸리셨던 것이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이미 이 가족을 살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우리 가족이 잠시 동안이지만 살던 지역을 떠나 북쪽에 갔다 오겠다는 것을 허락해줘도 되는 것인지를 고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교장선생님의 사모님께서 대뜸 “아니, 여름 소토지 농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제 보름 정도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얼른 다녀오게 하세요. 그래야 돈을 만들 수 있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사모님은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생선을 가져오면, 자신들을 모른 채 하지 못하고 본인들에게 이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사모님의 말을 들은 교장선생님께서 알겠다고 하시며 그날 아침 바로 여행을 허락한다는 허가를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출발일을 지체하면 우리가 북쪽으로 간다는 사실이 보위부에 알려져 길이 막히게 될 것이 두려워 그날 바로 쉬지 않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살고 있던 지역 사무장과 안전부 과장의 승인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음 날 통행증을 취급하는 2부과에 가서 통행증 발급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받으면 북쪽으로 올라갈 준비가 모두 완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진 모든 수를 다 써서라도 탈북을 할 것이라는 굳은 마음으로 몇 장 없

는 가족사진까지 모두 모아 짐 속에 넣어 두고 자리에 누웠지만, 북쪽으로 간다는 소식이 보위부 지도원의 귀에 들어가면 바로 잡으러 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때문에 가슴을 졸이느라 한참을 뒤척인 후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 찰나의 깊은 잠이 들었을 때 너무나 또렷하고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금붕어를 담아 키우는 투명 유리 어항이 보이는데, 그 어항 안에는 원목이 정말로 충실한 나무가 맑은 물속에 하얀 뿌리를 뻗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어항 속에 물은 티 한점 없이 맑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저는 너무나 신기해하며 “이야~”하는 감탄과 함께 나무줄기를 눈으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다 본 나무 위에는 무성한 푸른 숲을 이룬 나뭇가지들에 오이 같은 파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아니, 어떻게 어항 속에서 자라는 나무에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열릴 수 있지...’ 하면서 감탄하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고 마음이 상쾌하고 가벼워지기까지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꿈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어도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느껴지는 마음의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속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과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통행증을 발급받기 위해 2부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줄에 합류하여 차례를 기다렸지만, 점심시간이 다 되어도 순번이 오지 않았습니다. 취급원들은 밥을 먹고 오겠다고 하면서 나갔고 줄을 서 있던 사람들도 식사를 하고 와야겠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 부부는 식당에 갈 돈이 없어 주변을 맴돌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

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2부 과장이 식사를 마치고 다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는 남편이 학부모에게 받은 고양이 담배 두 껍이 전부였습니다. 그 담배를 쥐고 2부 과장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주머니에 담배 두 껍을 넣어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가 낮은 소리로 ‘사람들이 보니 이리저 말고 뒷문으로 따라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드디어 2부 과장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마디 인사를 나눈 뒤에 통행증 발급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남편이 교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준비한 서류를 보더니 말없이 통행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먹고 살기 힘들죠, 나를 찾아오면 한 달에 두 번씩은 통행증을 해줄 것이니, 이렇게 다니면서 장사해서라도 먹고 살라.” 하였습니다. 비록 그때 나의 마음은 그의 생각과는 달리 탈북을 위해 통행증을 받으려는 것이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그렇게 배려해 말씀해주시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무사히 통행증을 발급받아 집에 오니 오후 3시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떠나기로 하고 급하게 여행 중에 먹을 도시락을 준비해서 오후 5시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이 집을 떠나면 지금 보는 것이 이 집의 마지막 풍경이겠구나 싶어 한 차례 살던 집을 둘러보고 아이와 함께 발을 떼었습니다.

집에서 기차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비류강을 두 번 건너야 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는 강기슭에 도착해야 배를 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서 산을 넘었습니다. 산을 넘어 논밭 사이로 들어서는데, 저 멀리 비류강 기슭에서 마지막 배가 떠나려고 노를 젓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급해진 남편이 큰 소리로 “같이 가요!”



〈북한의 여행증명서〉

하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뱃사공이 우리를 위해 다시 강기슭에 배를 대주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까스로 첫 번째 강을 건넜지만 해는 점점 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더 강을 건너야 하는데 밤이 되어 건너지 못하게 될까 봐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강의 반대쪽에 도착하자마자 뱃사공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6살 된 아이를 업고 바로 다음 나룻터로 달렸습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결국 해는 숨겨졌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배를 못 타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오늘 밤에 이곳을 떠나지 못하면 잡힐지도 모르는데’ 하는 생각에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감시 대상인 내가 북쪽으로 간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 뻔하다는 생각에 누군가가 내 뒤를 쫓아오는 듯한 불안이 나를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사라지는 걸 바라보며 힘껏 달리고 또 달려 겨우 마지막 강기슭 나룻터 근처에 도달하였을 때, 어둠속에서 ‘찰랑, 찰랑’하는 열쇠뭉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렴풋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마침 그가 뱃사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배의 열쇠를 잠그고 집으로 들어가던 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간곡하게 배를 태워주실 수 없는

지 부탁했고 그는 남편이 등에 업고 있던 아이를 보더니 말없이 되돌아서서 우리를 배에 태워주었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두 번째 강을 건너서 저녁 7시경에 드디어 기차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역에 도착하자마자 역으로 들어가 매표소 앞에서 열차 시간을 확인해보니 40분 후에 출발해서 북쪽 청진까지 가는 준급열차가 딱 한 대 남아 있었습니다. 안심하며 차표를 사려고 물으니 기차표가 이미 매진되고 없다는 말이 되돌아왔습니다. 허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이제 여기서 잡히겠구나’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터덜터덜 힘없이 역을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업고 저는 그 옆에 서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힘 있어 보이는 남자의 손이 나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쥐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섬뜩한 기운이 스쳐 지나면서 ‘아, 잡혔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 뒤를 돌아보는데 어떤 남자가 우리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북쪽으로 가지 않아요?” 저는 두려움에 떨며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차표는 구했나요?”라고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묻는지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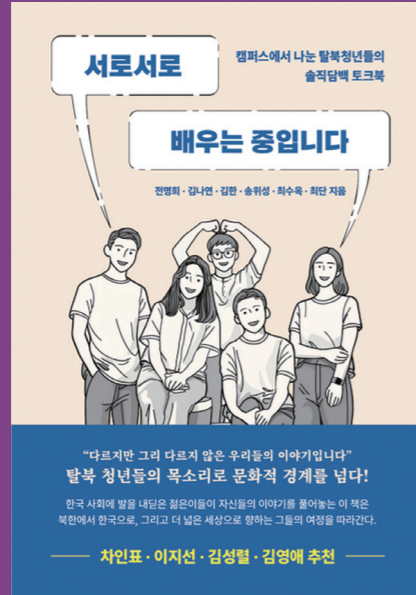
지 못한 채, “아니요, 없어서 구하지 못했어요.”라고 하자 그 사람은 자신에게 차표 두 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곧 들어오는 준급행 차표였습니다. 마치 꿈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에 파시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가격은 한 장에 12,000원인데 본인은 만 원씩 해서 두 장을 2만 원에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내에서 파는 차표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머니에 있던 단돈 2만 5천 원에서 기차표를 사고 남은 돈 5천 원을 다시 챙겨 넣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차표를 구입하고 나서 함경북도 온성읍에 사시는 외삼촌 어머니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곧 남편과 아이와 같이 30분 뒤에 오는 열차를 타고 북쪽으로 가려 한다는 상황을 알리고, 중국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브로커를 만나 이 번호에 전화를 걸어 나를 중국까지 넘어갈 수 있게 준비해달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전화를 마치고 저는 바로 청진으로 가는 준급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보통 북한에서는 전기가 좋지 않아 열차가 달리다가도 전기가 나가면 이틀이건, 삼일이건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멈춘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평안도에서 청진까지 가기까지 적어도 이틀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기차는 한 번도 쉬지도, 멈추지도 않고 달려 밤 8시쯤 출발한 기차가 다음 날 새벽 5시쯤 청진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와 고모가 계신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빈손으로 들어가기 위해 도착할 즈음에 주머니에 남겨진 5천 원으로 몇 가지 간식들을 샀습니다.

청진에 계시는 고모님 집에서 며칠 동안 신세를 지며 남편은 고모댁의 집수리를 도왔고, 저는 온성 외삼촌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중국 목사님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일단은 탈북을 도와 줄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을 전달받기 위해서 외삼촌 어머니와 회령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댁에서 회령까지 가려해도 통행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할 수 없이 회령까지 나를 데려가 줄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남편에게는 잠시 어디를 다녀오겠다고 돌려대고 남편은 고모 집에 남겨두고 아이만 업고 회령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시는 분과 둘이서 자동차를 타고 국경이 있는 두만강 기슭에 위치한 회령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국경 근처로 가는 것이다 보니 경비가 삼엄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회령 근처에 와서도 시내로 들어가기까지 총 세 번의 경비초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국경 경비대 초소, 두 번째는 사회 안전부 초소,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한 구역이었는데, 바로 국가 보위부 초소였습니다. 이런 살벌한 곳에서 통행증 없이 돌아다녔다가 잘못 걸리면 영락없이 구류장 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데리고 가던 분의 신분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초소 군인들에게 그의 신분증을 보이기만 하면 바로 무사통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전하게 회령에 도착하여 외삼촌 어머니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어머니와 소통하는 브로커를 통해 중국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오빠와도 전화 연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에게 현재의 상황과 계획을 알리고 나니 오빠가 돈을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탈북하기 위해 쓰라며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을 보내왔습니다. 그때의 한국 돈 200만 원은 북한에서는 500만 원이 되는 가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수수료로 50%를 떼어주고 나머지 반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오빠와 통화를 하는데 오빠가 “열매야, 오늘 저녁 바로 두만강을 넘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나를 따라 함경도에 처음 온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는 지역에서 처음 뵈는 고모 집에 홀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을 두고 와서 오늘 강을 넘을 수 없다고 하니 오빠는 “괜찮다, 네 남편에게는 다른 사람을 또 보낼 거다”라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그럴 수 없어 그날 저녁 다시 남편이 있는 고모댁으로 아이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계속)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 목: 서로서로 배우는 중입니다
저 자: 전명희, 김나연, 김한, 송위성, 최수옥, 최단
출판사: (주)페스트북
발행일: 2024년 10월 3일
가 격: 13,500원 (POD)

이번 북한개발소식에서는 북한출신 다음세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교회에서 어떻게 북음으로 다가가고 섬길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연구와 자료도 유용하지만, 아마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 탈북 청년들의 이야기를 접하는 일일 것이다. 어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알게 되는 것으로는 부족한, 소통과 공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 소개할 책, “서로서로 배우는 중입니다”는 그런 면에서 유용한 책이다. 이 책은 한동대 출신 기독교 탈북 청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족에 대해, 관계와 학교생활에 대해, 통일에 대해, 그 외 세상에 전하고픈 이야기 등의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탈북 기독교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각종 미디어의 발달을 통해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볼 기회는 비교적 많아졌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신앙적인 사례, 즉 신앙 안에서 회복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탈북 청년들의 이야기를 접할 기회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에 참여한 기독교 탈북 청년들은 여러 다른 상황과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앙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대학에서 비전을 갖고 닦으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상당히 의미있는 경험들과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들의 신앙생활 경험을 통해 탈북 청년들이 겪는 교회 생활의 어려움이나 아쉬움 등이 무엇인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점에 유의하고 또 집중해야 할지 등 배울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배움을 단답형의 How to 가 아닌, 그들의 진솔한 나눔을 통해 그 배경과 이유를 자연스럽게 깨우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러한 청년들을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을 꼽자면 탈북 청년들에 대한, 통일의 다음세대에 대한 비전과 동기부여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사실 통일에 대해, 탈북민 사역에 대해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당연한 답변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이 마음에 와 닿고 열정으로 승화되는 일에는 상당히 큰 간격이 있다. 단순히 그것이 필요하고 옳은 일이라는 이유를 넘어 그들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다가와 공감을 일으키는 가운데 그 비전과 사명을 내 사명으로 받아드리게 될 때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기독교 탈북 청년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통일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모습은 우리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도전을 주고, 통일의 다음세대를 위해 마음을 쏟는 계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탈북민 사역, 다음세대 사역을 고민하는 교회에게 좋은 시작점이 될 만한 책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교회 입장에서 이 책의 장점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해 보았지만 그러한 사역이나 활동과 무관하게 어려운 내용 없이 탈북청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흥미로운 책이다. 북한과 탈북 청년들, 다음세대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에게나 유익한 책이 될 것이다. POD(맞춤형 소량출판,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종이책을 인쇄하는 방식) 방식으로 출간되어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란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남과 북의 청년들이 서로를 배울 수 있는 더 많은 자료와 기회들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서로서로 배우는 중입니다”의 일독을 권해본다. 📖

영국 국방부 “북한군, 쿠르스크서 사상자 5천명 넘어… 3분의 1 전사”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에서 병력의 절반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4월 1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테레스트’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지난달 28일자 국방 정보 업데이트에서 “3월 현재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의 공격 작전으로 5천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으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이 전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11월께 이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병력 1만1천여 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3월 27일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1만1천여 명 중 약 4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1~2월 약 3천 명 이상이 증원 개념으

로 추가 파병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국방부는 “북한군의 높은 사상자 비율은 대규모 소모적인 보병 진격 작전을 벌인 데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군이 잘 훈련된 가공할 만한 전사들이지만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는 현대전에는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내셔널인테레스트는 지적했다.

그럼에도 북한군의 지원은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반격을 통해 빼앗겼던 영토의 상당 부분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작년 8월 기습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한때 1천 300km²에 이르는 땅을 장악했지만, 지금은 최소한의 발판만 지키고 있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다만 북한군의 활동 영역은 여전히 쿠르스크에 국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인정받는 지역으로 북한군이 추가 진격하는 일은 국제적으로 어떤 역반응을 불러올지 모르는 만큼 러시아와 북한 모두 고도의 전략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 연합뉴스, 4월 2일)

올해 들어 북중관계 회복 기류 포착



〈김일성 생일 경축 미술 전시회에서 북한 원로화가들과 대화하는 왕야전 중국 대사 (사진=주북 중국대사관 웹사이트)〉

경색되었던 북한과 중국 간 관계가 최근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월 1일 주북 중국대사관은 3월 30일 왕야전 주북 중국대사가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장진호 전투에서 희생된 전사자들이 묻힌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묘를 찾아 참배했다고 밝혔다. 또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달 주북한 중국대사관을 방문해 왕야전 대사를 만났는데, 이는 약 1년 만

에 이뤄진 북중 외교당국 간 고위급 회동이었다.

지난 3월 31일에는 한국전쟁 중국 지원군 추모 시설(중국 지원군 열사 표양 대표처)을 관리하는 중국 인력 14명이 북한에 들어왔다. 이들의 북한 복귀는 코로나 이후 약 5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4일에는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김일성 생일 113주년 기념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북한의 리룡남 주중특명전권대사 외 팽청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중국 간부들이 참석했다. 4월 18일에는 왕야전 중국대사가 김일성 생일 113주년 경축 ‘노화가들의 미술전람회’ 행사에 참석해 북중 혈맹관계를 강조했다.

북한은 신압록강대교의 북측 구간 공사를 재개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압록강대교는 2011년 착공했지만, 북측 구간 공사가 진척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된 상태에 놓여있었다. (참고: RFA, 4월 21일 / 연합뉴스, 4월 22일)

평양 화성지구 3단계 준공... 김정은 “현대적 살림집 이제야 안겨 미안”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 평양의 신도시 화성지구에서 3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열렸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애, 박태성 내각총리 등이 참석했으며 김덕훈 노동당 비서가 준

공사를 했다. 이어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은 준공테프를 끊은 뒤 김주애와 함께 살림집에 입사하게 될 노동자와 주민들을 만나 “이렇게 현대적인 살림집을 이제야 안겨주게 되어 미안하다”며 “오늘 감격과 환

희에 넘쳐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대하고보니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감을 떠맡아안을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말했다.

화성지구는 김정은 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신도시로 지난 2021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밝히면서 평양에 매년 1만 세대씩 총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성지구는 시장이 발달한 평성과 가까워 평양

시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 남북경협뉴스, 4월 16일)



북, 6년 만에 평양서 국제마라톤대회… 코로나 이후 첫 개최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했던 평양 국제마라톤 대회를 6년 만에 개최했다. 지난 4월 6일 진행된 제31차 평양국제마라톤경기대회는 남녀 풀코스(42.195km), 하프(21.097km), 10km, 5km로 나뉘어 열렸다. 북한 메체는 중국, 루마니아, 모로코, 에티오피아 선수들과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온 마라톤애호가(동호인)들이 해당 대회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개막식은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렸으며 국가체육 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김일국 체육상 등이 참가했다.

북한은 1981년부터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태양절)을 기념해 국제 마라톤대회를 개최해왔다. 지난해 4월 대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무산되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인 2020년부터 5년 연속 대회가 열리지 못했다.

풀코스 경기에서는 북한 박금동(남자), 전수경

(여자)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다. 에티오피아 메타 페리아 베켈레 기르마(남자)와 북한의 최일경(여자) 선수가 각각 2위를 했고, 북한 전광명(남자), 에티오피아의 센베테 겔라네 불불라(여자) 선수가 3위에 올랐다. 하프 코스에서는 북한 선수들이 금, 은, 동메달을 싹쓸이했다. 동호인 남자 마라톤 경기에서는 폴란드 선수들이 1, 2, 3위를 모두 차지했고, 여자 경기에서는 홍콩 선수가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서방 단체 관광객의 방북을 돌연 중단한 북한이 외국인을 상대로 한 관광 상품을 다시 확대하며 본격적으로 외화벌이에 나선지 주목된다. 고려투어스가 판매한 '마라톤 투어'는 5박 6일 동안 마라톤 대회 참가와 함께 평양 시내 곳곳을 돌아보는 관광 일정도 포함됐다. (참고: 연합뉴스, 4월 7일) 📄

1 통일과 선교의 주역으로 남북의 다음세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다가올 통일의 주역은 지금 성장하는 다음세대가 될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성숙한 남북의 다음세대가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남쪽에서는 통일과 민족에 대한 의식이 갈수록 약화되어가고 있고, 북쪽에서는 극심한 기독교 박해와 이상화 교육이 여전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참으로 제한되고 미약한 형편이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남북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더욱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 안에서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이러한 사역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여러 기관들과 선교사,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 통일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통일을 준비하며 다음세대를 통일의 세대로 세우는 일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북한 출신 청소년, 청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된 공동체를 꾸려갈 것인지 등 실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과 낯설음을 경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에게 탈북 청소년, 청년은 통일의 다음세대를 세워야 할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존재입니다. 한국 교회가 통일의 다음세대를 일으키는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북한 출신 다음세대들과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고 섬기며, 통일을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개선되도록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북한의 보릿고개에 대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물가 상승이 여전한 가운데 본격적인 보릿고개 시즌을 맞으면서 북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경제를 장악하고 주도하려는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어 서민 경제 개선에는 별 효과를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극심해져가는 빈부격차와 어려운 경제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특별히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덧붙여 북한 주민들에게 육적인 필요와 함께 영적인 생명이 함께 공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사역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4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10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파견되어 일하는 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동 및 생활 여건은 매우 열악하고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파견을 나온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그에 따른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북한 노동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는 문이 열리도록,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마음 발이 개간되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러우 전쟁의 종전 움직임 속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향한 선교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최근 러우 전쟁의 종전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군수물자 수출과 군대 파견으로 이익을 얻어왔던 북한에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외화벌이 방안으로 노동자 파견 활성화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 재건에 북한의 노동력이 투입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그 외 지역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노동자 송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들을 향한 창의

적인 선교의 기회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해외의 현장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변화하는 정세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게 될 세계 여러 지역의 현지 교회와 선교사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선교에 나설 수 있도록, 이를 위한 한국 선교계와 세계 교회의 협력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2025년 세계기독교박해지수 (WWL 2025)에서 최악의 박해 국가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이 여러 경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를 체제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극심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갇혀있거나 추방당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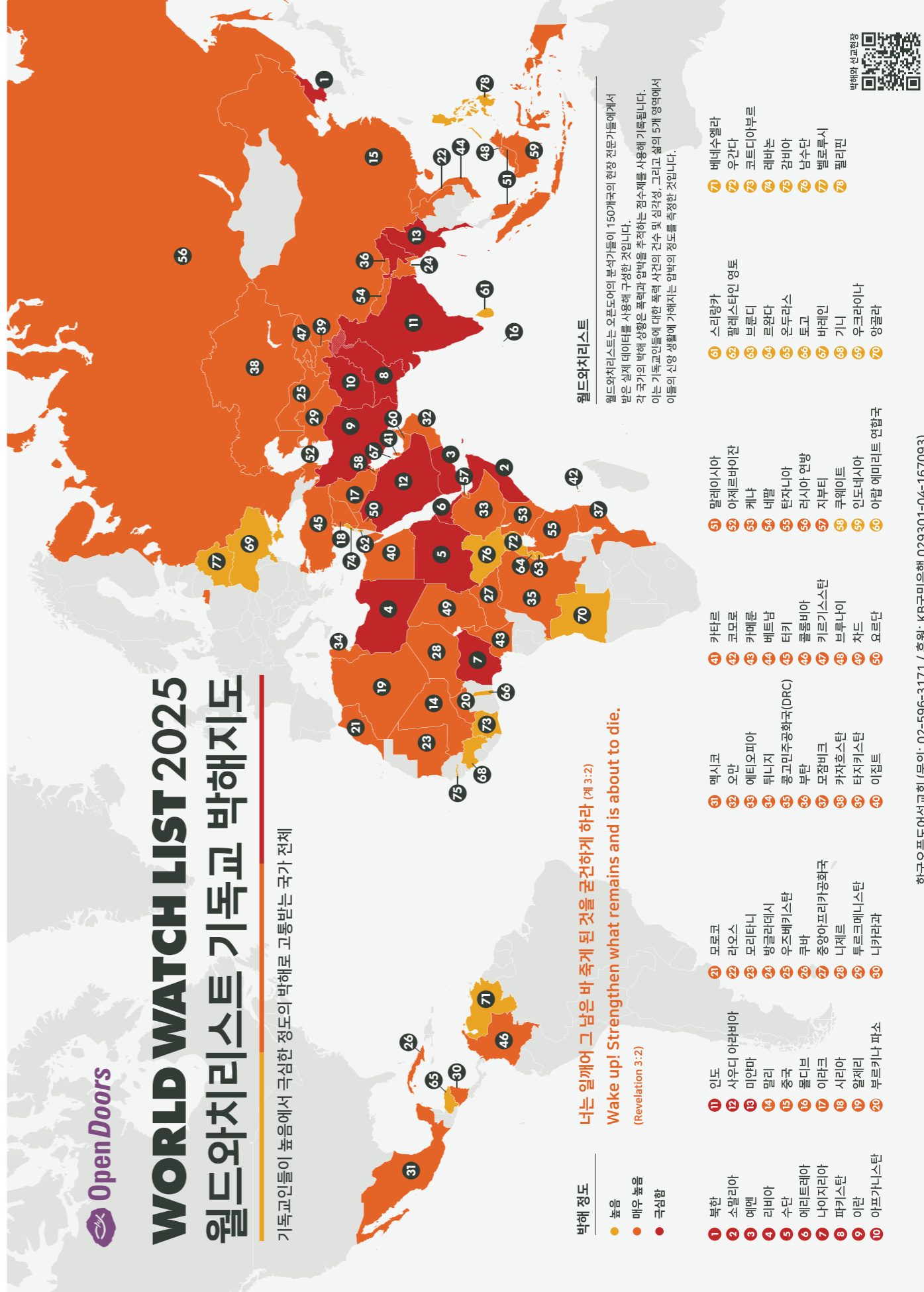
7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과 강제 복송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이 억류되신지 10년이 훌쩍 지나고 있고,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도 억류된 채 생사나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재개된 강제 복송으로 인해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은 사실이 적발된 탈북 신자들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 대상 사역을 하시다 체포된 백 모 선교사님도 1년 넘게 억류 중에 있습니다. 갇혀있는 선교사님들과 복송된 신자들의 안전과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8 선교현장의 기도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3국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제삼국에는 수만 명에 이르는 탈북 여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하여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현지 호구가 없는 이유로 사회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하여 중병으로 발전한 사례가 많으며 가정불화, 북에 두고 온 자녀와 가족을 평생 못 본다는 슬픔, 현지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호구와 진로 문제, 남한으로 넘어간 탈북 자매들로부터 들려오는 달콤한 소식들이 자매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의 여건도 열악합니다. 북한 여성들을 향한 이단들의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강화된 단속으로 정통 교회의 사역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에도 가정을 지키며 제3국에 거주하는 자매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이들의 신분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이들 자매들을 대상으로 한 이단의 활동이 무력화 되도록, 그리고 이 자매들을 양육하는 사역자들의 안전과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5년 4월 30일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에서
선교를 위한 자료개발과 한국교회에 기도정보 제공을 위해
계간 “북한지역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의 온라인 버전은
홈페이지(www.opendoor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요청하기” 메뉴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